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4/27~4/30)

코스피 상승 관성은 안 끝났다! 중동발 변동성 장세 속 반드시 잡아야 할 주도주 섹터~

- 주도주 재정비 구간 돌입!, AI·전력 인프라 저점 매수해야 하는 이유
- 금리, 환율, 반도체, AI 투자 심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이벤트 주간
- 전략적 스탠스는 비중확대 유지,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
- 유망 섹터는 AI 및 반도체, 인프라 및 전력, 금융 방어주 및 개별 테마

신고가 이후 숨 고르기보다 주도주 재정비 구간

주도주 재정비 구간 돌입! AI·전력 인프라 저점 매수해야 하는 이유

이번 주(4/27~4/30) 한국 증시는 "신고가 이후의 숨 고르기보다 주도주 재정비"구간으로 판단한다. 코스피는 이미 강한 상승의 관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조선, 코스닥 성장주에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2 차 협상 결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 유가 반등, 원/달러 환율의 1,400 원 후반대 고착화는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추격 매수보다 주도주 조정 시 선별 매수와 실적 확인형 종목 선별이 더 적절한 구간이다.

금리, 환율, 반도체, AI 투자 심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이벤트 주간

주요 매크로 및 기업 실적 발표 이벤트가 집중된 주간

주요 이벤트는 FOMC 회의, 미국 1분기 GDP, 미국 3월 PCE 물가, 한국 4월 수출입 데이터,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및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발표다. 특히 4 월 27 일에는 LG 이노텍, 한화오션, ISC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4 월 30 일에는 FOMC 결과,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실적, 미국 GDP 와 PCE 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다. 이는 금리, 환율, 반도체, AI 투자심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일정이다.

단기 과열 구간에서 분할 접근 및 비중확대 유지

금주 전략적 스탠스는 비중확대 유지,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

이번 주 전략적 스탠스는 **비중 확대 유지**이며,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이 적절하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핵심 축으로 유지하고, 조선·기계·증권·2 차전자·바이오 일부 종목은 순환매 후보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유가와 환율이 재차 급등할 경우에는 경기민감 성장주보다 정유, 방산, 금융, 현금흐름이 좋은 종목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AI 및 반도체, 인프라 및 전력, 금융 방어주 및 개별 테마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이번 주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은 AI 슈퍼사이클과 메모리 가격 상승, 데이터센터 후공정 및 통신 부품 수요 확대가 맞물려 실적 성장이 가장 뚜렷한 **AI 및 반도체(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SC, RF 머트리얼즈)**와 글로벌 전력망 확충과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 지분 매각 기대감 등 강력한 외형 성장과 회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및 전력·ESS(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삼성 SDI)**다.

그리고 금융주는 주주환원과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상대적 방어력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안트로젠은 단기 수급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바이오 종목으로, **금융 방어주 및 개별 테마 종목군(KB 금융, 한국금융지주, 안트로젠)** 내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만하다.

[금주 5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6,200 ~ 6,700 pt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6,200 ~ 6,700 포인트로 제시한다.

상단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고 미국 PCE가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할 경우 열릴 수 있다. 하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유가 재상승, 원·달러 환율 1,500 원 재돌파, 미국 PCE 쇼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반영한 방어선이다.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업황 개선, DRAM·NAND 가격 상승, HBM 수요 지속은 코스피 이익 전망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변수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D램 ASP와 낸드 ASP 상승도 확인됐다.

둘째 이슈는 AI 밸류체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반도체 BIG2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력기기, ESS, 태양광, 조선, 반도체 후공정, 광통신까지 투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는 지수 상승 이후에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슈는 중동 변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결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유가와 환율을 흔드는 변수다. 다만 시장은 전면전보다 협상 지연과 간헐적 충돌을 기본 시나리오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4월 30일 FOMC와 미국 PCE 발표가 핵심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달러 약세와 외국인 수급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압박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슈는 코스닥 성장주의 상대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다.

RIA, 국민성장펀드, 정책 수혜 기대가 맞물리며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단기 급등 종목은 실적보다 수급이 먼저 오른 경우가 많아 단기 급등 후 반락 등 확인이 필요하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상승 요인**

첫째, 반도체 업종 이익 전망의 압도적 우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서버 수요 확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둘째, AI 밸류체인의 확산이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AI 수요가 전력기기, ESS, 태양광, 조선, 광통신, 후공정 장비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은 이제 단순 AI 반도체를 넘어, AI 인프라 전체를 하나의 투자 테마로 보고 있다.

셋째, 유동성 장세의 재개 가능성이다. 증시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승 종목군이 반도체에서 코스닥 성장주로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하락 요인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위험이다.

유가가 다시 고점권으로 올라서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 이는 성장주와 고밸류 업종에 직접적인 부담이다.

둘째,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불확실성과 강달러 압력으로 1,400 원 후반대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환율이 1,500 원에 근접하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

셋째, **실적 기대치가 높아진 데 따른 셀온/매도압력 위험**이다. 이미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실적이 양호해도 가이던스가 약하거나 수익성 지표가 흔들리면 단기 차익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변수 요인

첫째, **미국 PCE와 FOMC 결과**다. 물가가 안정되면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미국·이란 협상 재개 여부**다. 2 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휴전 연장과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 재개 신호가 나오면 유가와 환율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지만, 군사 충돌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즉각 위험 회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국내 실적 시즌의 확산 여부**다. 반도체만 강한 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수는 버티지만 종목 체감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조선, 전력기기, 증권, 2 차전지, 바이오까지 이익 향상이 확산되면 시장 상승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가장 우선하는 섹터는 반도체다. AI 수요가 견고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과 후공정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SC, 심텍, 피에스케이홀딩스 등은 이익 향상과 AI 패키징 투자 수혜가 연결되는 종목군이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와 ESS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송전 투자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대표 수혜주이며, 삼성 SDI와 일부 2 차전지 소재주는 ESS 회복과 현금흐름 개선 기대가 있다.

세 번째는 조선·기계다. 조선은 기존 수주 사이클에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내러티브가 더해지고 있으며, 기계는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가 강점이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신흥국 인프라와 호주 판매 확대가 외형 성장 근거로 제시된다.

네 번째는 증권·금융이다.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자 자금 유입은 증권주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금융지주와 KB 금융은 브로커리지, 조달재원 확대, NIM 상승, 주주환원 매력이 동시에 작동한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성장주다. 바이오는 섹터 전체보다 개별 이벤트와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 안트로젠은 단기 매매보다는 이벤트 확인형 접근이 필요하다. 파마리서치, 올릭스 등 일부 혁신 바이오 종목은 성장주 순환매가 확산될 경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관심 10 종목 및 포인트]

관심 10 종목

삼성전자(005930): AI 수요 지속, DDR4·NAND 가격 상승, 레거시 메모리 비중 수혜가 동시에 작동하는 반도체 핵심 대장주다.

SK 하이닉스(000660): HBM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AI 슈퍼사이클의 직접 수혜주다.

ISC(095340):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AI 반도체 후공정 수요 확대가 연결되는 소부장 핵심 후보이며, 4월 27일 실적 이벤트도 대기 중이다.

HD 현대건설기계(267270):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가 외형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

HD 현대일렉트릭(267260):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송전 투자 확대의 대표 수혜주다.

삼성 SDI(006400):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에 따른 현금 유입 가능성과 ESS 회복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금융지주(071050):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와 IMA 기반 운용자산 확대 기대가 유효하다.

KB 금융(105560): NIM 상승, 판관비 감소, 주주환원율 개선 기대가 결합된 금융 대표 방어주다.

RF 머트리얼즈(327260):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 수요 증가와 중국산 부품 규제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안트로젠(065660): 바이오 성장주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선별 편입한다.

[표 1] 금주 주요 투자 유망 관심 10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283,258.2	219,500	+1.62
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870,922.3	1,222,000	+8.33
095340	ISC	반도체	4,981.3	235,000	+2.62
267270	HD건설기계	기계	9,340.6	194,700	+19.52
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44,986.8	1,248,000	+14.81
006400	삼성SDI	IT가전	51,655.3	641,000	+24.95
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14,433.0	259,000	+0.78
105560	KB금융	은행	58,686.7	157,400	-3.02
327260	RF머트리얼즈	상사, 자본재	784.1	92,300	-8.52
065660	안트로젠	건강관리	372.7	37,250	-1.06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시장 전체 이탈보다, 주도주 내에서 비중을 재정비하는 구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수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지만, 상승의 근거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반도체 실적 상향, AI 투자 확산, 전력 인프라 수요, 코스닥 성장주 정책 기대라는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비중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핵심 주도주를 유지하고, 과열된 종목은 일부 이익 실현 후 눌림목에서 재진입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가장 중용한 리스크는 유가와 환율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유가와 환율**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이어지고, WTI 가 재차 고점권으로 상승하면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협상 재개 또는 봉쇄 완화 신호가 나오면 달러 약세와 원화 안정, 외국인 수급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방향성보다 **이벤트 대응력과 종목 선별력**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장세로 판단한다.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성장은
다시 살아나지만
물가가 높아 연준은
움직이기 어렵다**

이번 주 미국 경제 데이터는 **성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가 높아 연준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으로 요약된다.** 미국 1 분기 GDP 는 2.2%로 직전 0.5%보다 크게 개선되며, 4 분기 성장 둔화 이후 경기하방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는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3%로 여전히 연준의 2% 목표를 웃돌고 있어, 성장 반등이 곧바로 금리 인하 기대 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준은 4 월 FOMC 에서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할 가능성 99%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성명에서도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 양쪽의 위험을 함께 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지표는
경기 하단을 지지**

제조업 지표도 경기 하단을 지지한다. S&P Global 제조업 PMI 는 **54.0**, ISM 제조업지수는 **53.2** 로 모두 확장 기준선 50 을 웃돌고 있다. Reuters 는 4 월 미국 기업활동이 AI 반도체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됐고, 특히 제조업 PMI 가 47 개월 만의 고점인 54.0 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같은 보도에서 이란 전쟁과 공급망 차질로 투입가격과 산출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해, 제조업 개선이 물가 부담을 동반하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4/28, 화	CB 소비자신뢰지수(4월)	89.4	91.8	소비 심리가 둔화돼 가계 체감경기 부담이 이어짐
4/30, 목	금리결정	3.75%	3.75%	물가 부담이 상존하여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관망 가능성
	중국 제조업 PMI(4월)	50.2	50.4	확장권은 유지했지만 중국 제조업 회복 속도는 둔화될 조짐
	GDP QoQ(1분기)	2.2%	0.5%	미국 성장률이 반등하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가능성
	근원 PCE YoY(3월)	-	3.0%	연준 목표 2%보다 높아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제한
	근원 PCE MoM(3월)	0.3%	0.4%	월간 물가 압력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신규 실업수당청구	212K	214K	노동시장은 냉각보다 완만한 둔화 및 안정에 가까운 상태
5/1, 금	제조업 PMI(4월)	54.0	54.0	여전히 제조업 확장이 뚜렷해 경기 하단을 지지
	ISM 제조업 PMI(4월)	53.2	52.7	AI 반도체 등 제조업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기민감주에 우호적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소비 심리는
여전히 약하다**

소비 심리는 여전히 약하다. CB 소비자신뢰지수는 **89.4** 로 이전 91.8 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실제 성장률과 제조업 수치가 개선되더라도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금리·고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2K**로 직전 214K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노동시장은 아직 급격히 훼손되지 않았다. 즉 이번 주 데이터는 **경기 급락보다는,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이 버티는 국면에 더 가깝다.**

금주 경제 데이터의
핵심 시사점

첫째, 성장 반등이 확인되고 있다. GDP 2.2%, 제조업 PMI 54.0, ISM 제조업 53.2 는 미국 경제가 4 분기 저성장 국면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 근원 PCE 3.0%, MoM 0.3%는 연준 목표보다 높고, 최근 중동발 공급망·에너지 리스크도 물가 하방을 제약한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셋째, 연준은 금리 동결과 관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도 버티고 고용도 안정적인데 물가가 높다면, 연준은 빠른 인하보다 데이터 확인을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M7 중 5 개 기업 실적
발표 알파벳, MSFT,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이번 주 실적 발표는 빅테크, AI 인프라, 반도체, 헬스케어, 소비, 에너지 업종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구간이다. 금주 핵심은 알파벳(GOOG/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 애플(AAPL) 등 초대형 기술주와 KLA(KLAC), 퀄컴(QCOM), 램리서치(LRCX), 인텔(INTC) 등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비자(V), 마스터카드(MA), 코카콜라(KO), P&G(PG), 엑슨모빌(XOM), 셰브론(CVX) 같은 경기·소비·에너지 대표주이다.

AI 와 클라우드 투자
지속성

가장 중요한 축은 AI 와 클라우드 투자 지속성이다. 알파벳(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는 클라우드, 광고,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센터 비용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견조할 경우, 시장은 AI 투자를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축으로 다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CAPEX 부담이나 광고 둔화가 부각되면 빅테크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일 자	종 목
4/27(월)	버라이즌(VZ), 케이든스디자인시스템(CDNS), 퍼블릭스토리지(PSA)
4/28(화)	비자(V), 코카콜라(KO), 티모바일(TMUS), 코닝(GLW), 웰타워(WELL), 부킹홀딩스(BKNG), 씨게이트(STX), S&P글로벌(SPGI), 스타벅스(SBUX), UPS(UPS)
4/29(수)	알파벳(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 KLA(KLAC), 퀄컴(QCOM), 에퀴닉스(EQIX), 제럴다인내믹스(GD), ADP(ADP), 오틀리오모티브(ORLY)
4/30(목)	애플(AAPL), 일라이릴리(LLY), 마스터카드(MA), 캐터필러(CAT), 머크(MRK), 암젠(AMGN), 코노코필립스(COP), 웨스턴디지털(WDC), 스트라이커(SYK), 파카하니핀(PH)
5/1(금)	엑슨모빌(XOM), 셰브론(CVX), 린데(LIN), 에이온(AON), 콜게이트(CL), 도미니언에너지(D)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두 번째 축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이다. KLA(KLAC), 램리서치(LRCX), 퀄컴(QCOM), 인텔(INTC), 암페놀(APH), 에퀴닉스(EQIX), 디지털리얼티(DLR)는 AI 서버, 반도체 장비, 데이터센터, 커넥터, 네트워크 인프라의 주요 강도를 보여준다. 특히 KLA 와 램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수주와 고객사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이며, 에퀴닉스와 디지털리얼티는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의 실제 임대 흐름을 확인하는 종목이다.

소비와 방어주

세 번째 측은 **소비와 방어주** 점검이다. 비자(V), 마스터카드(MA), 코카콜라(KO), 스타벅스(SBUX), P&G(PG), 콜게이트(CL), 몬텔리즈(MDLZ), 맥도날드(MCD)는 가격 전가력과 소비 탄력성을 보여준다. 이들 기업이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방어할 경우, 소비 둔화 우려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트래픽 둔화, 가격 저항, 프로모션 확대가 확인되면 경기 방어주도 압박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AI 성장주가 지수 상단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소비·헬스케어·에너지가 하단을 방어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단순한 EPS 서프라이즈보다, **가이던스, CAPEX, 마진, 수요 관련 코멘트**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